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

문의

노동국

연락처

02-6788-3619

e-mail

cpla@minjoo.kr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대위 · 노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정책협약 및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대위는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16일(금)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가올 대선 승리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실현을 위한 공동의 연대와 실천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동명 위원장과 양부남 민주당 광주선대위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 등 정당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역사적인 1980년 5.18 민중 항쟁 이후 45년의 세월이 흘러 국민은 윤석열의 계엄에 맞서 싸웠고 윤석열을 탄핵시켰다. 하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고 법원과 경찰은 내란 세력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45년 전 5.18 정신이 대한민국을 살려냈듯이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살려내자”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6.3 대선은 내란 완전 종식,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이란 3대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적극 지지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책협약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을 반드시 실현하고, 조직적 실천으로 대선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의 선택이 곧 국민의 선택이자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임을 강조하며, 이 후보와 함께 "노동이 중심이 되는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산하 2만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지 정당으로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은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자를 잘 이해하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와 정책협약을 맺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이재명 후보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할 최적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행사에 이어서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에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며 참배를 진행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린 오월영령 광주를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내일을 한국노총이 열겠습니다' 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참배자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광주지역본부 윤종해 의장,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 그리고 조합원 200여 명이 함께했다. /끝/

첨부. 정책협약서 및 지지선언문, 현장 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정책협약서

정 책 협 약 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대선 승리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
실현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약속한다.

1.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2.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는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
및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3.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는 선거
직후부터 협약 이행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2025년 5월 16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 장

윤종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

이승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문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국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50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산하 2만 노동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할 것을 다짐하며, 조직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대선 승리에 함께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으로서 노동의 고단함을 온몸으로 겪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노동 현장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과감한 실천력은 복합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책임자임을 확신합니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정부 주도의 노동 탄압과 노조법 개악에 맞서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동유연화를 기조로 회계공시, 타임오프 기획 감사 등을 통해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탄압했으며,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권 행사, 5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주69시간제 추진 등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노동개악에만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거를 저지르며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노동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제

명 후보와 함께 국민주권의 가치와 평등, 연대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2만 노동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조직적 실천을 통해 반드시 대선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선택은 곧 국민의 선택이며, 그 선택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노동이 중심이 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협약



